

<2013년11월5일 화요일 씨티엔 선생님 새벽말씀>

내 증인이 되라 시대의 말씀을 전하라

본문: 사도행전 1장 8-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을 들으면 전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들과 마지막 헤어진 것이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루살렘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감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돼서 잘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

“그 때에 대해서 내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하기 달렸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기에 달렸으니까 회복의 세계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부탁한 말이면서 또 한 면으로는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리니 그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앞날에 대한 예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이 나를 악평하고 이단시하고 우리 복음을 막고, 나를 두고 하나님의 보낸자가 아니라고 했는

데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보니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나를 증거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면으로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앞날을 예시한 말씀입니다. 그 말대로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결코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전해주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 이 선지자의 글이나 하늘의 말씀을 더디 깨닫고 푸는 자들아.” 하며 확실히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디 알면 안됩니다. 항상 사람이 빨리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만큼 무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미련한 자들아, 시대에 너희가 빨리 깨닫고 빨리 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제사장들, 시대의 많은 사람들아! 이는 너희들이 전해야 될 하늘의 귀한 외침이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르며 악한 말을 하며 복음을 막고 하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시대의 메시아다. 모세 때부터 예언하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너희를 구원하는 구주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무엇들을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고 있느냐?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등불을 보아야, 빛을 보아야 너희가 어둠 속에 있을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시대에 이상세계를 이루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에 천국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열렬하게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감화하심이 크고, 이들과 함께 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기적과 이상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시대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전에 들은 말씀이 아니고, 전에 우리가 속했던 기성에서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처음 듣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이니,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복

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전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과 능력을 얻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한 복음이니라. 그가 보낸 자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그 근본의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복음을 선포한 자도 역시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복음이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인이 되고, 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시대의 나를 증거하라.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낸 바가 아니다. 우리 기존성에 있는 말씀으로 볼 때 그 말씀과 같지 않다. 그러니 이 복음이 아니다.’ 하며 거짓으로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막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전하라.”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뿌리지 않으면 나지를 않습니다. 씨앗은 갖고 있기만 하고 오래가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씨앗도 임기가 있고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넘고 그 이듬해에 뿌리면 그만큼 씨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만큼의 생기를 발해서 본질의 좋은 품종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씨를 뿌리면, 묵은 밥을 먹을 때 진기 없는 밥을 먹게 되듯이 묵은 씨를 뿌리면 진기 없는 싹이 나서 역시 열매도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썩거나 힘이 없어서 품종이 변질된 다른 곡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와 같으니 말씀을 듣고 감동되었을 때, 힘있고 영감과 직감이 있고,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무지한 자들도 감동되어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돌이키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힘차게 일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효력이 별로 없고 듣는 자도 큰 감동이 적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감동되었을 때 전해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사롭게 생각지 않고 깊이 듣게 됩니다. 뜨겁게 전하니까, 감동으로 전하니까, 생생하고 실존적인 상황이 풍기니까, 본인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니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전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한 3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 크게 감동되었다. 지금은 큰 감동은 없지만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전하고 싶

다.”이렇게 전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크게 감동되고 있다. 전하고 싶다. 들어보라.” 했을 때는 마치 겨울철에 음식을 만들어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맛있고 음식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고기 하나를 비유할지라도 막 구워서 뜨거워서 맛있을 때 먹는 것하고 식었을 때 먹는 것하고는 역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려간 다음에, 말씀이 소화가 된 다음에, 말씀 듣고 잘될 것인가 확인한 다음에 전하는 것하고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전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 명씩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으로 임합니다. 뜨거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5개, 10개 배우다가 너무 좋은 말씀에 너무 감동되어서 바로 가서 친구를 데려다가 같이 말씀을 듣게 해서 시간차로 말씀이 끝나서 말씀 수료식은 같은 날 한 사람도 있다는 기적적인 보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십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나지 않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겠다, 주를 믿겠다 하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나부터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부터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안 듣고 왔다? 그냥 혼자 ‘나 교회에 가고 싶다.’ 해서 온 사람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영계와 육계를 죽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전도를 안 했는데 ‘나 교회에 가고 싶다.’ 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온 사람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각 교회를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실력으로 천리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손 든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 전에 누가 전도를 해서 온 것입니다. 그 때 안 오고 이제 온 것입니다. 하도 실천을 늦게 하니까 ‘그전에 복음 들었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온 것입니다. 그때 씨뿌린 것이, 밭에 비가 하도 안 와서 말라서 싹이 늦게 나듯이 늦게 난 것 같습니다.

거의 다가 복음을 전해서 왔습니다. 98, 99%입니다. 각 교회마다, 세계 각 나라마다 보니까 99%는 복음을 전해서 왔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있는 교

회도 있는데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지요? 거의 다 복음을 전해야 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형님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 교회 갈래?” 그 이야기 때문에 “아, 나도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일요일마다 놀러 가는 장소인줄 알았습니다. 뭐라 할까

이러한 비율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우리 섬리사 전체에 몇 십 명 안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동되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가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이 엄청나게 각 교회에 모두 꼭 차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또 이렇게 짹짹 차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도 하겠습니다.

<기 도>

“이제 시대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아 나를 증거하라! 그리고 시대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일어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만군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하며 주 예수의 사랑하심이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며, 동행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충만히 더해주시기를 삼위의 능력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